

2009年 8月
석사학위 논문

중국과 한국기업회계제도의 비교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 계 학 과

이 몽

중국과 한국기업회계제도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ccounting System
in China and Korea

2009年 8月 25 日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 계 학 과

이 몽

중국과 한국기업회계제도의 비교연구

지도교수 박길영 교수님

이 논문을 회계학과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 계 학 과

이 몽

이 몽 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대학교 교수 김 안 규

위 원 대학교 교수 박 길 영

위 원 대학교 교수 조 승 제

2009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2
제2장 한국 회계기준의 발전과정	3
제1절 기업회계기준의 이론적 배경	4
제2절 회계기준의 형성과 발전과정	5
제3절 한국 기업회계기준의 문제점	8
제3장 중국 회계기준의 발전과정	9
제1절 중국의 회계기준 형성과 발전과정	10
제2절 중국회계기준의 특징	19
제3절 중국회계환경의 변화	21
제4절 중국 기업회계기준의 문제점	22
제4장 한국과 중국의 기업회계제도의 비교	26
제1절 한국과 중국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상의 차이	26
제2절 기업회계제도의 체계 비교	28
제3절 재무제표의 체계	36
제4절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비교	47
제5절 수익과 비용 인식기준의 비교	52
제6절 외화환산회계의 비교	57

제5장 결론	61
참고문헌	63

표목차

<표4-1>한국과 중국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의 비교	26
<표4-2>한국기업회계기준의 체계	31
<표4-3>국제회계기준과 한·중 회계기준의 일반원칙 비교	35
<표4-4>한국과 중국의 대차대조표의 비교	37
<표4-5>한국과 중국의 손익계산서 비교	42
<표4-6>한국과 중국의 현금흐름표 비교	44
<표4-7>한국과 중국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이윤분배표)비교	45
<표4-8>한국과 중국의 재무제표 종류의 비교	47
<표4-9>한국과 중국의 자산·부채의 평가 비교	51
<표4-10> 한국과 중국의 수익·비용인식기준 비교	55
<표4-11>한국과 중국의 외화환산회계 비교	59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Accounting System in China and Korea

Li Meng

Advisor : Prof. Park Gil-Young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With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changes, the international common accounting system has gradually come into being. Accounting Standard for Business Enterprises of the Republic of Korea by IMF is amended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fter joining the WTO, China gradually becomes stronger. With the influence of economic market and under the auspices of macroeconomic regulation and control of Chinese government, international economic competition has not affected the change of the enterprises accounting system, while an accounting system converging to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is established.

Since 1992,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mutual economic co-ordination, as well as the increasingly large amount of investment and trade result in intensive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contact.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differences of economic system and social environment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ccounting

regulations, accounting methods, and accounting performance vary from each other. China and South Korea's educational activities are also frequent, so they attract a lot of investment activities. To solve this problem the mutual study of accoun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needs to be coordinated.

In this paper, firstly, the author will compare and analyze the developing process of both South Korea and China's business accounting benchmarks and the problems that appear in the developing process, as well as the difference of it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ondly, thr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two countries' business accounting benchmark, the author will carefully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ystem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financial statements as well as the basic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key accounting diction of the terms.

As the trading volum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ends to increase, the two countries' business accounting benchmarks are necessary to be adjusted to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t is concluded that the business accounting benchmarks of South Korea and China appears similar in the basic system, but great differences exist in the associated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Many things need to be adjus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accounting benchmarks and the similar development processes as well as the economic systems. Therefore, with the increasing accounting personnel of the two countries, the people who want to understand the two countries' accounting information need common research and more effor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전 세계의 회계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 등 사회 환경의 차이에 따라 그 기준이 각기 다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국은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회계기준을 모델로 회계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80년대에서 줄곧 대내적으로 경제체제의 개혁과 대외적으로 경제개방의 경제정책을 실시해왔으며, 이에 따라 활발한 기업 활동은 오늘까지 계속해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국가로 부상함에 따라 거대한 자본시장과 잠재력이 있는 소비시장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또한 WTO 가입이후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 개방 확대(서비스분야의 개방 확대) 및 중국의 적극적 자유화 추진과 중국정부의 다양한 외자유치 장려책 시행으로 한국의 대 중국투자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경제교류와 상호경제협조, 투자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밀접하기 때문에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투자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양국 간의 회계기준상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양국 간의 회계기준 차이에 대한 파악과 연구 분석이 절실하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체제와 사회 환경의 차이에 따라 회계법규, 회계처리방법, 회계표현양식 등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 중국교역 활동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회계정보의 근간을 이루는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어 투자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양국 간의 회계영역에 대한 상호연구, 그리고 상호협조가 요구되고 있으며 양국 간의 회계기준의 깊이 있는 비교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외국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과거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체

제로의 전화하는 제도적 조치의 일환으로 회계법을 중심으로 기업회계준칙과 기업재무통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도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의 회계원칙을 참조하여 2000년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민간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KAI: Korea Accounting Institute)¹⁾의 회계기준위원회(KASB: Korea Accounting Standard Board)를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을 계속적으로 개정 보완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 기업회계기준을 이론적으로 비교하여 양국 회계기준의 차이점을 연구한다.

둘째,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한국기업의 재무제표를 중국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후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한국과 중국 기업회계기준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셋째, 양국의 회계제도의 생성 및 발달 과정을 통해 중국의 회계개혁이 한국 회계제도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연구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논문은 한국회계기준과 중국회계기준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고, 사례연구 및 실증연구를 통하여 양국의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가 기업 활동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과 구성을 기술하였다.

1) 한국회계연구원(KAI: Korea Accounting Institute)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은행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등 14개 회원으로 되어있는 사단법인으로서, 세계은행과 한국정부간의 약속에 따라 정부가 제정해 오던 기업회계기준을 민간에게 위탁할 목적으로 1999년 6월 30일자로 설립되었다. 한국회계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의 위탁을 받아 내부에 설치한 회계기준위원회(KASB: Korea Accounting Standard Board)를 통하여 회계기준 제정, 개정과 해석 및 질의회신을 수행하고 있다.

제2장은 한국의 회계기준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은 중국의 회계기준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은 한국과 중국의 회계제도를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하였다. 기존연구의 고찰에 이어 양국의 회계제도의 체계 및 구성을 비교하고,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와 작성기준,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수익비용인식기준, 외화환산회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제5장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제2장 한국 회계기준의 발전과정

제1절 기업회계기준의 이론적 배경

회계제도란 사회적 승인을 얻은 회계의 구조, 즉 회계 관련 부문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원칙이나 기준에 따르고 상법 및 기타 회계법규에 의해 규제되고 실천되는 기업회계, 국가 및 공공단체회계, 그리고 기타 회계를 뜻하며 임의적이며 객관성 없는 회계방법과 구별된다.

기업회계를 포함한 모든 회계단위의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공정한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불공정·불명확한 회계정보는 이해관계자에게 크고 작은 손실을 초래하므로 국가는 법규로써 회계를 규제하며, 권위 있는 공공단체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원칙이나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관공서의 행정지도 등으로 강제력을 부여하는 등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관공서의 행정지도 등으로 강제력을 부여하는 등 회계정보의 타당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제도는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시대의 변천, 정치·경제적 조건, 국제환경 등에 따라 바뀌게 된다.

이러한 회계제도하의 기업회계가 사회적·공공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회계방법 및 보고방법이 사회적·공공적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계가 갖는 사회적·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전시킨 것이 다름 아닌 기업회계제도로서의 회계행위를 수행할 때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행위의 규범이 된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회계가 갖는 사회적·공공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회계행위를 수행할 때 경제주체들이 준수할 회계원칙 또는 기준을 마련해놓고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²⁾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라는 회계행위의 규범을 마련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개발하고 있으면 한국은 「기업회계원칙」 또는 「기업회계기준」이란 것을 제정하고 이를 기업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란 말로서 표현되는 미국의 회계행위의 규범이나 기업회계기준」이란 말로 표

2) 금융감독원, “한국회계제도의 발달과 전망”, 금융감독원, 2002.4 p.2

현되고 있는 한국의 회계행위의 규범은 기업회계제도의 전형적인 형태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하튼 오늘날에 와서는 회계원칙은 경제사회에서 기업의 회계실무를 이끌고 가는 지도 원리로서, 이것이 갖는 사회적 역할이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

회계원칙은 발전된 회계이론을 종합적으로 집약하여 것으로서, 기업의 회계실무를 지도하는 원리 및 지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회계원칙에 관한 이론적 또는 실천적 연구를 통하여 회계원칙을 성문화하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산업사회에 적합한 회계원칙을 개발하는 문제를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한 국가에서 회계가 사회적으로 수용되어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까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오늘날 선진 제 국가의 회계제도의 성립과정을 보면 특정의 경제여건을 배경으로 한 회계실무가 우선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오랜 시일을 두고 경제사회의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을 이루어가면서 새로운 지식이 축적되어 회계 관습으로 나타나 산업사회 전반에 보급되게 되어 사회적 승인을 받아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 성립하게 된다. 영국·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회계제도는 거의 예외 없이 이 같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확립된 것이다.³⁾

제2절 회계기준의 형성과 발전과정

한국은 고려시대부터 한국 고유의 부기법인 「송도사개치부법」이 상인들 간에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회계원칙이 처음으로 성문화되어 발표된 것은 1958년부터이다.

한국의 회계제도는 선진 국가에서 발달하여 형성된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1958년에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한국의 최초의 회계기준이다. 즉, 미국의 회계원칙은 1930년대의 경제공황을 계기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문화하기 시작하여 1938년에는 세 교수의 공동연구결과로 「회계원칙에 관한 보고서(A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⁴⁾」가 발표된 바 있는데 이

3) 이재성, “중국 시장경제와 회계제도 개혁 : 기업회계제도를 중심으로”, 회계연구 제6권 제2호, 2001.12

최진현, “중국회계의 제도적 분석”, 회계정보연구 제14권, 회계정보학회, 2000.12

보고서는 1949년 일본의 회계원칙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⁵⁾.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은 재무제표작성에 필요한 기본적 원칙과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였다. 한국의 회계원칙은 미국과 일본회계원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한국의 최초의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은 내용면에서나 체계면에서도 일본과 거의 비슷하였다. 이들 규정은 원칙 없이 제각기 행해졌던 회계실무의 통일화와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즉, 회계용어와 재무제표의 작성양식이 통일되었으며 회계처리방법도 점차 개선되었다.

최초로 회계원칙이 제정될 당시 한국은 경제회복기에 들어서서 외자도 입의 촉진, 조세제도의 정비, 조세제도의 정비, 금융의 정상화, 증권시장의 육성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발맞추어 기업회계는 회계장부가 제대로 갖추어진 기업이 적었고 회계처리도 통일되지 못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으며 과세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였으며 이것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경제개발에 따라 회계제도도 변천되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년~1966년)기간 중이었던 1962년 1월 「증권거래법」과 「상장법」을 제정하였다. 제3차 5개년 계획(1972년~1976년)과 제4차 5개년 계획(1977년~1981년)기간에 상장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투자자나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76년 증권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고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을 설립하여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제도를 확립하였다.

1974년 7월에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1975년 4월에는 「상장법인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1976년 7월

4) 1938년에 미국의 Sanders, Hatfield&Moore 등 3인은 「회계원칙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SHM 회계원칙으로 약칭하여 쓰고 있다.

5) 이정호, 「현대회계이론」, 경문사, 1994, pp170-172.

에는 비공개기업들에 적용되는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을 대폭 개정하여 신뢰성 있는 기업회계자료의 공시를 위한 기본들을 마련하였다. 「기업회계원칙」은 1958년부터 1981년까지 적용하여 왔으며 1974년부터는 상장법인과 일반법인이 적용받는 회계원칙이 이원화되었다.

제5차 5개년 계획(1982년~1986년)기간에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거쳐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신흥공업국으로 변모하였다. 1980년 12월 31일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시켜 일정규모(총자산 30억 원)이상의 주식회사는 모두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의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기업체는 반드시 감사증명이 첨부된 재무제표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계처리를 건실화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성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원화 되었던 회계원칙을 통합하여 1981년 12월 23일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증권관리 위원회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질적 수준을 통제할 목적으로 「회계감사기준」도 동시에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가 요구하는 훈련받는 회계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70년부터 국내의 4년제 주요대학에 회계학과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제6차 5개년 계획(1987년~1991년)부터 1998년 12월 12일까지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기업회계가 환경의 변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은 9차의 개정을 하였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8년 4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은 폐지되고, 1998년 4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었으며, 1998년 12월 12일 전면 개정하였다. 2000년 1월 12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이 개정을 진행하였다. 2000년 8월 25일 「기업회계기준」은 10차의 개정을 진행하였다. 2000년 1월 12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 7월 금융감독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제정권한이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되고 이에

따라 한국회계연구원에서 기업회계기준을 기준서체계로 전환하고 주요 기준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공개초안이 공시되어 토론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2000년 7월 24일부로 그 권한이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로 바뀌었다. 새로운 회계기준제정 기구가 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2001년 3월 30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발표하였다. 이 기구는 민간기구로서 앞으로 계속 중요시 될 것이다.

제3절 한국 기업회계기준의 문제점

한국 기업회계기준은 증권감독원 회계 관리국에서 제정과 관련된 실무적인 작업을 담당하고, 회계제도자문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하여 증권위의 의견을 거쳐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정된다. 기업회계기준의 설정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 환경과 기업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정부 주도형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주도에 의한 회계기준의 제정으로써 실무에 건전한 회계 관습이 축적되지 못하고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회계 관리국의 예산이 부족하여 충분한 조사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전문 인력의 확보 및 활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무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에 어려움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회계행위의 실천기준이다. 현대 복잡하고 동적인 경제상황 속에서 기업회계기준은 항상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시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⁶⁾

첫째, 현재가치평가에 관한 규정: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기업의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Inflation 회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은 현재가치를 평가할 때 공정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적절한 현재가치로 볼 수는 없다.

둘째, 공시내용의 확대: 기업이 재무제표의 공시과정과 공시내용은 기업 환경에

6) 김종규, 기업회계기준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사회과학연구 제11집, 2002, p.56.

능동적으로 적용하면서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너무 불안정하므로,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주기 및 주식사항의 보완: 한국 재무제표에 계정과목은 복잡하기 때문에 주기와 주석은 불충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세계화에 대한 규정: 한국에서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은 주로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고, 정부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중국 회계기준의 발전과정

제1절 중국의 회계기준 형성과 발전과정

중국회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고증자료에 의하면 약 3, 4천년부터 경제활동에 대하여 계량하고 기록해 왔다고 한다. "회계"라는 용어는 600년 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처럼 정교한 회계기준이 정착되기 전의 중국회계를 "중국구식부기"라 부르며 중요한 특징은 현금을 기초로 하여 기장과 계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보다 정교한 기장방법은 약 1, 2천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통적인 회계에 대하여 중국은 1949년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되면서 舊소련(현 러시아)의 회계기준을 국영전반에 도입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도록 서구식회계기준을 모범으로 한 회계기준을 도입·성장·발전하였다.⁷⁾

중국의 회계기준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기준서(statement)형식 보다는 규정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993년 이전까지는 회계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나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였다. 계획경제하에서 엄격하게 제정된 양식과 지시에 따라 국가가 제공한 자원과 이익의 운용에 초점을 맞추어져 왔던 기준 회계기준에 대한 개혁의 출발점은 1985년 「중외 합자경영 기업 회계규정」(1992년 7월 이를 폐지하고 새로이 「외상투자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고 이 「외상투자 기업회계기준」은 외상 투자기업이 2002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폐지되었음)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고분제 시점(股份制 時點) 기업회계기준」(주식회사 회계기준)이 1992년 5월 23일 제정되어 같은 해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되고, 1992년 11월 16일 중국 최초의 회계기준인 「기업회계 준칙」⁸⁾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재정부 영(令)으로 공표되어 1993년 7월 1일부터 시

7) 이상일 「중국과 홍콩의 회계와 세무」, 삼정 KPMG, 2002, p.61

행됨으로써 체계화가 시작되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과는 별도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의 재무행위를 표준화하고,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증진하며, 재무관리와 경제계산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2년 11월 20일에 재정부는 「기업재무통칙」을 제정하여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통칙은 회계원칙은 아니나 회계준칙 또는 회계기준 및 각종 법률에 규정 재무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흡수하여 재무활동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행정명령으로 하위체계인 분행업(分行業: 업종별)기업 재무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다.(「기업재무통칙」 제45조)

1. 중화인민공화국 설립과 국민경제 부흥시기의 회계기준 (1949년~1957년)

1949년 신 중국이 성립한 후에 오랫동안 파괴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구소련에서 경제관리 체제와 회계원칙 및 회계제도를 그대로 도입했다. 그리고 도입했던 회계원칙이나 회계제도를 그 당시에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에서만 사용했으나, 사영기업에서는 신 중국이 성립하기 전에 사용했던 자본주의 회계제도를 그대로 사용했다.

1949년 10월에 「중앙인민정부조직법」이 공포되어 정부가 전국 재정경제업무를 주관하고 정무원의 지도와 정무원 재정경제위원회의 지도를 받도록 하였으며, 회계관리기구인 회계제도처를 설치하고 전국 각 업종의 회계작업을 지도·감독하게 되었다.⁹⁾

1950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통일회계기준의 기초에 관한 훈령」을 발표하여 통일회계제도의 각종 초안을 마련하여 입안하였다. 또한 회계제도규칙심의회를 설립하여 「국영기업통일회계 장부, 회계증빙 잠정조례초안」을 공표하였다. 또한 국영기업 통일재무제표 양식 및 국영기업 통일 계정과목을 제정하고 국영기업 통일재무제표 양식 및 국영기업 통일계정과목을 제정하고 국영기업 결산방법, 국영기업 이윤

8) 중국의 회계기준을 통상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이라 칭한다.

9) 송동섭, "중국 회계제도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제15집 제3호, 한국경영사학회, 2000.12.30, pp.5-10.

상납회계처리방법과 국영기업 상각기금 상납회계처리방법 등의 문안을 수정하였다.

1952년 「국영기업 통일 회계장부, 회계증빙 잠정조례 초안」을 「국영기업 통일 장부등기, 회계증빙작성방법」으로 개칭하여 동년 12월 1일부터 정식 공포하고 집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국영기업의 증빙작성, 장부기록, 계정과목의 통일, 결산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및 공시 등 회계부문은 통일되는 추세에 있었다. 이 시기에는 국민경제의 각 부문 즉, 중공업, 경공업, 방직, 연료, 교통, 철도, 체신, 무역, 농업 등의 부문에 적용되는 통일회계기준은 舊소련 전문가의 지도하에 제정되었고, 회계이론상 舊소련의 체계를 주로 도입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관계부문의 회계기준으로 점차적으로 수립되었다.¹⁰⁾

1953년부터 시작된 제1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계획, 재무, 통계, 및 회계 등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1954년 12월 「재정부」는 정식으로 「국영공업기업 통일회계과목」과 「국영공업기업 통일재무제표와 양식」을 공표하였다. 한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위의 두 개의 공포는 국가 대규모 경제전설의 요구에 적합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재정부」는 1955년 11월 두 가지 규정을 수정하여 각각 「국영공업기업 기본업무 표준계정계획」과 「국영공업기업 기본업무 통일재무제표와 설명초안」을 공표하고 195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규정들은 소련의 1954년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2. 대약진시기의 회계기준(1958년~1960년)

대약진시기에 중국의 경제업무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다양해지고 회계기준 또한 갈수록 실제 회계작업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회계기준의 규정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개혁하여 결점이 있는 많은 기은 자유주의와 간편화의 요구를 수용하여 업무관리부문은 정부회계 및 사업당위회계의 기초업무관리를 관대하기 하고 부분적으로 기준의 제정과 관리권한을 하급기관에 이양하도록 하였다.¹¹⁾

1958년 3월 재 정부는 중앙주관 부문인 공업, 기본시설, 공급 및 판매별로 각각 「재

10) 李曙光, 葛明, 李琪 「中國企業破產與重組」, 北京人民日報出版社, 1996.P.56.

11) 중국회계연감 편집위원회, 1997.

무제표양식설명」 등의 법규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1958년 「지방기업기초재무제표의 양식과설명」도 공포했다. 1958년 기업회계기준의 개혁과정 중에는 많은 제도를 폐지하고 부분 신설하거나 폐지 후 신설하지 않았으며 회계기준은 약화되고 독립채산제를 관철하는데 불리하게 되었다.

1959년 회계제도를 재정비하여 「국영기업 회계처리작업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회계업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3. 국민경제 조정시기의 회계기준(1961년~1965년)

국민 경제 조정시기의 회계기준은 기업의 경영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회계기준을 부활하고 회계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조려와 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회계기준의 회복과 안정을 이룬 단계이다.

1961년 「국영기업회계처리작업규정: 회계작업 40조」 초안은 재산과 자금의 회계처리부터 원가와 이익의 회계처리, 회계증빙, 장부와 재무제표 회계기준의 제정과 집행, 회계인원의 직책 등에 관한 전분 40조의 회계작업조례를 제정하여 진실한 기장, 결산, 재무제표의 보고 및 회계감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재무회계기구의 독립설치와 그 감독기관으로서 총회계사제도의 확립을 규정하고 있다.

1962년 「회계담당자의 직권실험조례」가 통과되어 재무회계기구의 건립과 회계담당자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회계담당자의 직책, 권한 임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963년 「국영공업 및 교통기업의 총 회계기준에 관한 및 가지 규정」을 비준하여 해당기업의 공장은 반드시 기업의 경제계산과 재무회계작업에 앞장서야 하며, 총회계사를 설치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964년에 「기업회계공작개혁개요」와 「예산회계공작개혁요점」이 공표 되었다. 또한 회계연구자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적 기장법을 창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대차와 복식기장을 분리시켜 복식기장만을 남겨서 사회주의 재산을 기본으로 경영활동을 기록 및 계산하려고 하는 재산수지 기장법이 만들어졌다.

1965년 4월 전국기업회계작업개혁 좌담회는 재정부가 초안한 「기업회계작업개혁요강(실험초안)」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그 후 재정부는 공업기업, 기본건설계정

과목과 재무제표 양식을 제정했고 공업기업, 기본건설간의 회계기준 등 4가지 종류의 회계기준 초안을 1966년 1월부터 전국 상업단위에 모두 실시하도록 하였다.¹²⁾

4. 문화혁명시기의 회계기준(1966년~1975년)

문화대형시기에는 사상과 정치가 우선하고 경제 관리와 회계가 경시되고, 아무런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회계제도는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회계계산과 감독제도는 모택동의 급진주의에 의해 많은 시련을 겪었다¹³⁾. 문화혁명시기의 회계기준은 회계법규의 파괴, 회계기구의 파괴, 회계처리체계의 파괴로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회계발전을 정체시켜 결국 전체 10년이 후퇴하였고 신중국의 회계역사에 처음으로 저조한 시기에 진입하였으며 그 정도가 대약진 시기보다 더욱 심하였다. 문화혁명기간 동안의 회계기준의 붕괴는 중국회계기준의 발전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5. 개혁·개방시기의 회계기준(1976년~1989년)

20세기 70년대 중반부터 경제조정기에 들어가 80년대 말까지 기간에는 회계실무의 재 확립과 회계제도의 정비가 추진되었다.

1976년 10월 문화대혁명이 종료됨에 따라 국가는 파괴당한 회계기준을 부활하고 정비하여 문화혁명 이전으로 환원시켰다.

1978년부터 중국공산당의 11차 인민대표대회 후 중국 경제개혁의 서막을 열었다. 1978년 말 개최된 삼중전회(三中全會)에서는 당의 지도이념을 전환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회계업무를 중시하여 회계전문가의 양성에 관심을 두고 그들이 경제업무수행 중에 국가제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회계업무의 지위를 향상시켰으며, 1979년부터 중국은 국유기업에 대하여 변동 가격제를

12) 李曙光, 葛明, 李琪, 전계서, P.64

13) 한국무역협회편, 「대중국 교류 및 투자안내」, 한국무역협회, 1996.10.

도입하였으며 감가상각기금을 기업 내에 유보하게 하고 경제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일련의 기업개혁을 실행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함으로써 경영관리를 위한 회계정보가 중요시되었다.

1979년 7월 중국 최초의 외국투자기업의 법률인 《중외합자 경영기업법》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980년 9월 전국 인민대회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소득세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대외법률 및 법규의 공포 및 시행은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회계제도의 제정을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1981년 3월에 「회계간부 기술을 집행 임시규정」이 공포되었다. 이 규정은 회계원을 고급회계사, 회계사, 보조회계사, 회계원 등 네 개 단계로 구분하고 여러 가지 승진조건을 정하였다.

1982년 4월에는 재정부에서 「국유기업의 재정주재원제도의 부활에 관한보고」를 발표하였다. 수년간의 준비, 연구, 토론관정을 거쳐 재 정부가 1983년에 공포한 《중외합자경영기업회계제도 시행초안》은 신 중국 성립 이래 최초로 국제회계관례에 따라 제정된 새로운 회계제도이다.

1992년은 「재정부」가 중국의 개념체제하에 해당하는 「기업회계준칙」을 연도로서 이의 제정은 중국이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적인 회계체제에서 영미식 회계체제로 전환하였음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6.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의 회계기준(1990년-2006년)

90년대 초 중국의 경제개혁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들어갔다. 즉, 계획경제 또는 시장경제의 선택문제이다.

1985년 1월 21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이하 회계법)」을 통과시켰으며 1985년 5월부터 국영기업사업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군대에 적용되는 법으로 1993년 12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및 심화를 수용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비국유기업, 사업단위,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 및 기타의 조직으로 확대하는 등 법의 내용을 수정 공포 하였으며 1999년 10월 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주석령 24호로 개정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

에 이르고 있다.

기업책임자의 책임(회계정보의 완전성과 진실성), 공시의무(진행 중인 소송, 제3자에 대한 보증과 우발채무 등의 재무제표에 공시), 회계장부와 기록을 중국어로 유지(와상투자기업은 중국어와는 별도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을)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었다. 회계법의 시행을 보조하는 규정으로 「재무회계보고조례」("조례", 2000.6.21. 국무원제정 2000.1.1시행)가 있다. 이 조례는 재무보고의 정의, 구성, 재무제표의 편제, 재무정보의 대외제공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위와 같은 법규이외에도 건전한 회계 관행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들이 있다. 외상투자기업이 2002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받음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지원 하는 이들 규정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회계기준」 제4조가 인용하고 있는 규정은 「회계기초공작규범」과 「회계당안관리판법」 둘이다.

「회계기초공작규범」(1996.6.17)은 회계기구와 회계인원, 회계결산(회계증빙작성과 장부기장, 재무제표의 편제), 회계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회계당안관리판법」(1986년 6월 1일 제정, 1998년 8월 21일 개정, 1999년 1월 1일 시행)은 회계당안(회계자료)의 구성과 보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⁴⁾

《기업회계준칙》으로 명시되는 중국 회계개혁은 중국의 회계역사상 최고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1992년 11월 30일 《기업회계준칙》과 《기업재무통칙》의 제정·실시 및 《9대업종별 13개 회계제도이하 업종별회계제도로 약칭》의 제정·실시를 말한다. 이 세 번째 개혁을 중국에서는 신 회계제도라고 부르며, 1993년 7월 1일부터 통일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회계제도의 개혁은 종래형의 사회주의회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준으로서 중국의 회계지도의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이것은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지속적인 심화에 따라 중국 본래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상 적용되어온 회계 제도는 시장경제체제에 상응하는 회계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합한 《기업회계준칙》, 《기업재무통칙》 및 《업종별 회계제도》의 제정·실시, 《회계법》의 수정과 함께 관련된 조리회계사와 회계사전업 기술 자격고시 시행, 공인회계사제도 개혁, 국가감사제도 개혁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14) 이상일, 전게서, pp.68-69.

7. 국제회계기준의 컨버전스의 새로운 회계기준(2006년-2008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 동안 힘든 노력을 통해서 중국은 중시시장경제에 개발 과정에 적용, 그리고 국제재무보고 기준 컨버전스의 기업회계기준 체계를 건설한다.¹⁵⁾

중국의 회계기준 초안을 형성 후에, 우리는 부분 대표한 상장 기업 및 중·대형 기업을 선택하고 기준의 의견에 대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한다.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준은 상장 기업 재무상황과 운영 결과의 영향에 대한 이해하고 파악하다. 중국의 회계 기준을 준수하므로 국제 융합하는 동시에, 중국의 토양에 적용할 수 있고 작업도 구현할 수 있고 중국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몇 년에 중국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를 계속 가까이 접촉에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매우 좋은 의사소통 및 협력 메커니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회계기준의 건설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국제회계기준의 컨버전스 추진하다.

2005년 중국의 회계기준은 국제 컨버전스가 계획하고 기준이 완성되었다. 2006년 2월 15일에 중국회계기준의 국제재무보고 기준시스템의 컨버전스를 공식의 발표했다. 중국회계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우리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중국의 회계기준에 시행 이후, 게시 비교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만약에 실제작업 중에서 새로운 거래의 출현이나 사항을 규제하는 지침을 개발해야 되고 아니면 국제회계위원회는 새로운 것 또는 개정기준을 발행했다. 중국은 기본적인 기준에 따라 예정한 절차를 설립하고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고 동시에 국제 컨버전스의 원칙을 생각하고 중국의 회계기준과 더욱 완전하게 개선한다.

중국 회계 기준의 구현

2007년 1월 1일에 중국회계기준은 우선 상장기업에서 시행하고 다른 기업들의 구현을

15) 劉玉婷 回顧中國會計準則的建設與發展之路, 2008

촉진한다. 재정부의 중국의 회계기준의 책정을 중요하는데 기준의 실시를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신흥과 전환의 경제 국가 중에서 중국에 대하여 국제 재무보고 기준 및 컨버전스의 새로운 기준의 구현하고 심한 테스트 및 도전이 말이다. 중국의 재정 경제부와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 및 기타 관심 있는 당사자의 긴밀한 보조를 맞추고 빈틈없는 마련하고 이 기준은 이행 전에 및 이행 과정에 효과적인 대책의 일련을 한다.

1. 대규모의 기업회계기준의 훈련 실시

2006년 7월부터 중국재정경제부는 3개 국가회계학원으로 훈련하고 종합적인 회계 기준에 대해 훈련 실시하다. 주로 전국상장회사 및 증권과 선물 비즈니스의 모든 수준에서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 금융 부문, 규제 당국 및 회계 학계, 수만 명 직접적인 훈련을 받았다.

2. 회계기준 구현중의 "공정 관리"와 감독의 강화

상장 회사의 재무보고 분석 시스템의 구축, "逐日町市、逐戶分析" 으로 실시한다, 상장 회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지속적인 추적 및 모니터링의 경우 강화 구현. 상장 기업과 회계사무소는 언제든지 대화와 접촉을 강화하고 회계기준의 시행시기에 문제를 즉시 해결한다.

3. 중국회계기준은 1570개 상장회사에 효과적으로 구현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중국회계기준은 2007년에 1570개 상장회사에 효과적으로 구현했다. 2008년에 재정부 회계부문은 거의 5개월 만에 노력에 통해서, 상장회사는 새로운 회계기준을 구현하고 2만자(수량) 이상의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래서 회계기준의 효과적인 사실에 구현을 보여준다.

8. 국제회계기준을 실시의 회계기준(2008년-현재)

2008년 1월, 중국 회계 기준위원회는 국제 회계 기준위원회와 "중국 회계 기준위원회에 따라서 국제 회계 기준위원회 각서의 컨버전스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체결"로 서명했다. 작동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컨버전스를 확인했고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 가까이 강화하며 높은 품질이 세계적인 회계기준의 설립 추진라고 발표한다.

2008년 4월18일에 중국회계기준위원회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재무회계기준

위원회에 따라 양국 회계의 교류와 협력문제는 <중미회계 협력 각서>에 서명했다. 양국 간 회계의 협력을 강화 및 교류의 작동 메커니즘의 설립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

제2절 중국회계기준의 특징

중국은 80년대에 들어서서 시장경제화의 길을 선택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왔다.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키워가고 있으며, 97년 말부터 발생한 한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겪게 된 IMF사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연 10%의 고속성장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과는 달리 회계제도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이 회계제도의 개혁을 여러 번 추진했었지만 회계제도는 낙후되어 있었고, 중국이 국제기준의 회계제도를 채택했지만 작성되는 갖가지 재무관련 자료들은 단순히 상급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용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등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국적’ 이었다는 평가였다.

이렇게 정확치 못하고 불투명한 회계관행에 대해 국제사회는 의구심을 품어 왔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여러 기업회계와 관련된 사건들이 터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국제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중국은 2001년1월에<기업회계제도>를 공포하는 등 회계제도의 국제화를 목표로 개혁을 이루게 되었다.

중국의 회계개혁은 2단계 개혁으로 볼 수 있는데, 1단계 개혁은 문화혁명이 끝나고 등소평의 남순강화 이후부터 가속화된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회계개혁이며, 2단계 개혁은 시장경제를 가속화하고 중국경제의 국제화에 적합한 회계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1단계 회계개혁은 시장경제의 도입과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1992년에 제정·시행된 회계제도인<외국투자기업회계제도>와<주식제실험기업회계제도>및 양척양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1단계 회계제도의 개혁은 외국자본의 유치와 현대기업제도의 확립에 따른 시장경제에 적합한 회계제도의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계획경제하의 소유

형태별·업종별 회계제도를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시장경제 회계제도로 전환하였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1단계 회계개혁의 출발은 최초 선진화된 회계제도인 <중외합자기업회계제도(1985.3.4)>를 확대 수정한 <외국투자기업회계제도>이며, 선진기업형태인 주식회사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제정된 <주식제실험기업회계제도>를 통해 가속화되었고 최종적으로 시장경제 회계제도의 틀을 마련한 것은 「양척양제」에 있다. 또는 시장경제 회계제도를 기업단위에서 전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1993년에는 <회계법>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1단계 회계제도 개혁은 중국 경제관리체제와 기업관리체제의 개혁에 중대한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경제개혁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회계규범체계가 불완전하여 회계처리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으며, 분식회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경제 질서를 극도로 혼란하게 하였다.

따라서 1997년 이후부터 시작된 2단계 개혁은 회계제도의 통일화 및 국제화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구체적으로 1997년부터 계속 제정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1998년 제정된 <주식회사회계제도>와 1999년 <회계법>의 수정 및 2001년 1월에 제정된 <기업회계제도>를 통해 통일회계제도의 구축과 국제화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구체회계기준>을 1997년부터 계속 제정하여 새로운 경제현실 즉 관계회사와의 거래, 채무조정, 비화폐성거래, 우발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분식회계를 금지하고 회계질서를 정돈하기 위해 1999년 10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회계법>을 수정하여 중국 내 모든 정부, 기업 및 사업단위 등의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와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게 되었다.

또한 <회사법>과 <증권법> 등의 유관 법률에서 요구하는 기업회계정보의 보고대상에 대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아 기업회계정보의 보고대상에 혼란을 가져왔으며 보고정보의 내용 및 지표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무원은 2001년 1월 1일에 <기업재무회계보고조례>를 공포·실시함으로써 기업재무회계정보의 구성, 작성, 대외제공, 법률책임 등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규범화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법제도적인 분석 및 고찰은 더 이상 깊게 여구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회계기준 및 회계기준의 특성을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하기로 한다.¹⁶⁾

제3절 중국회계환경의 변화

중국회계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시장잠재력이다. 1996년 國發16號 문서에 의하면 2000년부터 중국 모든 기업의 연례재무제표는 회계사 사무소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중국의 회계시장이 방대한 규모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 중국의 국내회계 사무소가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외국회계법인의 업무발전속도 또한 상당히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¹⁶⁾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회계사 업종에 유리한 면도 있지만 충격도 크다. 단기적인 이해득실로 볼 때 불리한 점이 많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생존해 나간다면 어부수행능력이 대대적으로 제고될 것이며, 업무영역도 확대될 것이다.

또한 WTO 가입 이후 중국의 회계서비스시장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 질 것이다. 날로 새로워지는 정보통신기술과 경제단일화는 회계서비스도 국제화의 양상을 나타내게 한다. 계속적인 대외개방정책은 더욱 더 많은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중국시장에 진입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할 것이며, 중국의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국제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 것이며, 수많은 외국 회계법인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회계서비스시장의 국제경쟁도 더욱 더 치열해 질 것이다.

WTO 가입에 의한 이러한 회계시장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회계기준 등의 회계제도에도 미치는 영향 역시 다음과 같이 매우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회계가정에 대한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WTO 가입은 세계경제를 융합시켜 전 세계적인 사업구조의 혁명을 일으킨 전자상거래의 광범위한 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많은 인터넷상의 회사, 은행, 자본시장은 회계주체를 가상주체로 만들었고 그들의 주요한 자산 역시 지식과 인적자원이며, 그들의 존재 여부는 업무의 수요와 수익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실체들의 경제업무는 전통회계의 회계주체의 가정과 계속기업의 가정에 충격을 준다.

16) 이학규, 중국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한국의 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05.9.24

17) 최상문의, "중국 WTO 가입이 중국회계환경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 제8권 제1호 2002.4,p.181.

둘째, 전통적인 회계측정 모델에 중대한 변혁을 것이다. WTO 가입의 결과 대외경제 기술 교류의 가속화에 따른 기업경영활동 부문 중 정보활동의 증대에 의하여 인적자원과 무형자산이 대한 가치평가와 상각, 재무제표에의 합리적인 반영 등이 중요한 회계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 외환환산, 연결재무제표, 물가수준회계 등 평가, 환산, 공시 등 측정과 관련된 제 문제들은 필연적으로 회계측정이론의 재구축을 요구하며, 전통적인 회계측정 모델에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셋째, 기업회계준칙의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WTO 설립협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도 회계분야에서 국제실무와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회계개혁을 실시한 이래 중국은 회계준칙을 제정하였지만 국제기업기준과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기업회계준칙과 기타 회계제도의 조화도 미진한 현황이다.

넷째, 회계정보공시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행 재무보고의 회계정보공시는 재무정보를 주로 공시하는 범위도 재무회계가 확인, 측정하는 항목에 제한되어 있다. WTO 가입 이후 재무제표의 범위는 재무정보만이 아닌 비재무정보, 즉 투자위험, 불확정 정보, 미래성 정보 금융상품 정보, 기업관리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회계정보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재무제표가 반영할 수 없는 "재무제표의 항목"에 대해서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환경 및 회계제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중국회계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이며, 그에 따른 회계연구의 발전과 회계정보공시의 규범화와 법제화가 가능하게 하는 등 중국회계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반하여 외국의 선진 회계법인과의 경쟁에서 밀려 회계시장 자체가 외국자본에 잠식이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중국 기업회계기준의 문제점

첫째,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업무별 회계제도의 구체적인 행위 규범은 기업개혁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칙 지도하의 업무별 회계제도는 아직도 만들은 여러 부문에서 불합리적인 점이 많다.¹⁸⁾

①이 새로운 시스템은 구현할 때, 주위가 너무 조용하다. 첫째, 홍보가 충분하지 않고 교육이 학습하지 못했다. 새로운 기본 시스템의 구현은 회계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특히 관련 부서 직원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한다. 관찰자 말은: 중앙은행은 대부분 직원들이 기본적인 제도가 바로 구현되어야 하는 시스템 정보를 받지 않고 대부분 회계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하지 않다. 기본적인 제도의 훈련에 대한 중앙 지점 수준이상의 회계 부서의 개별 임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받았다. 하부 조직 업무인원들이 훈련 받지 못했지만 심지어 기본적인 제도의 텍스트를 보지 못했다. 둘째, 새로운 시스템 비계, 하부 조직에서 회계 부서의 구현에 비해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②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족합니다. 기본 시스템은 회계 업무에 대한 크게 원칙적인 규정을 만들고 구체적인 업무의 지도가 명확하지 않다. 실제 회계처리 중에서 사용되는 회계의 동일한 조항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 시스템이 즉시 설명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작업 관행에 대한 명확하게 규범하다. 그리고 전체 회계 체계, 통합과 명확화 시켰다.

③ 새로운 시스템에는 6개 부족한 영역이 있다. 첫째, 회계의 주요 상황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회계의 주요 문제는 회계 위험의 예방 측면의 초점이다. 작품 연습, 모니터 및 감독 부서는 일본 회계 상황에 대한 중요한 문제의 범위 여부가 되는 것이 이해의 차이를 존재이다. 그리고 감독 부서가 다르니까 회계의 중요한 문제는 그 범위와 동일하지 않다. 이 규칙이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규칙이 없다고 한다. 둘째, 사후 감독 사업 규범 조항의 부족이다. 시스템이 명확한 후에 모니터는 회계 계산의 하나 링크이지만, 사후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심각성과 구조성의 업무 규범을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업무 중에서 사후 감독 중심이 "휴지통"처럼, 최종 회계 작품은 전 게시물을 모니터링을 중앙에, 직원 스트레스, 무거운 작업, 감독의 초점을 이동, 그건 감독의 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셋째, 이자 계산의 규정이 너무 간단하고 명확하고 상세하지 않다. 넷째, 개별 조항에 실용성을 강하지 않다. 다섯째, 관련 인사의 위험을 인식을 강하지 않고 주요 직무를 떠나 작업의 정상적인 영

18) 新會計制度在執行中存在問題幾對策, 2009.04.13

향을 받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 조치를 무시합니다. 여섯째, 새로운 증명서의 서명에 대한 디자인 문제이다.

둘째,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그 구조에 있어서 완전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

완전성과 체계성은 현대 기업회계기준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기업의 관행적인 회계처리사항을 국가가 통일로 제정함에 따라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무리가 뒤따른다. 다음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난다.

① 개념을 복귀하고 회계 관리 및 회계 감사 업무를 다시 심사

구두는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이념적 중요성을 변경이고 직원 중요성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첨부한다. 회계직원의 대우문제를 수행하다. 과학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평가한다. 인센티브를 구체적인 운영을 설명해야 한다. 회계 팀의 안정성, 회계적으로 전문 인재를 유인하고 중앙은행의 회계업무를 새로 성과를 만들겠다.

② 연구를 잘하고 새로운 제도를 수정하고 개선하다.

모두 요구는 당시 직장 상황에 근거하여 지정했고 이 상태 상황을 변하고 있느라고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정상 현상이다. 하지만 좋은 제도는 작업상태의 지속적인 적응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래서 회계제도의 개발자는 계속 회계 작업의 심도 있는 연구 조사해야 한다. 사람 지향하기 위해서, 위험을 방지하는 핵심을 위해서, 과학적인 수정하고 개선하는 새로운 제도이고 중앙은행의 회계작업을 위해서 좋은 제도보호를 제공한다.

③가능한 빨리 제도의 준비 참고 강화 실무 작업의지도성

제도의 확립은 구제도에 관련성이 있는 보충 규정에 대한 필터가 통합된다. 최대 깨끗한 포괄하려면 기본 제도와 부서 규제를 갈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정된다.

④회계 사업 부문 조정 메커니즘의 구축

이 메커니즘에 따라 회계 부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 하모의 사이, 중앙은행의 회계 검사 업무를 함께 완료, 자금의 안전을 보장, 회계 업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⑤회계 문서의 서명을 신중하게 설계해야한다

사후 검사는 회계 감독의 책임과 회계 관할의 책임을 혼란스러워 할 수 없다. 서명

의 디자인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한다.

⑥회계의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

명확하게 회계 감독의 독립성, 심각, 감독정보는 아래부터 밑까지 및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조절한다. 과학, 효율성, 편리한 원칙으로부터 회계 감독 업무 프로세스의 할당되다. 감시의 능률을 높이다. 사후 감독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이다.

제4장 한국과 중국의 기업회계제도의 비교

제1절 한국과 중국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상의 차이

한국과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의 차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완전히 상이한 경제제도 하에서 형성된 것으로써, 양국 간의 기업회계기준의 차이를 그 발전과정을 통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표4-1>한국과 중국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의 비교

한국 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		중국 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	
		1949~1957 (건국초기)	구소련식 회계지도의 도입기
1958~1976 (제정기)	기업회계원칙 재무제표규칙(선진국회계원칙의 도입)	1958~1960 (대약진시기)	대약진시기의 회계제도
		1961~1965 (조정시기)	조정시기의 회계제도
		1966~1976 (문화대혁명)	많은 회계제도는 폐지됨
1976~1980 (발전기)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정	1978~1991 (확립기)	개혁개방 경제시기(회계제도의 구축기)
1981~1996 (확립기)	기업회계기준에 대해 9 차례의 제정과정	1992~2006	사회주의 시장경제 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의 접근기

1997~ 현재 (국제화)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국제회계기준의 접근기	2006~2008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의 컨버전스
		2008~현재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의 실시

1)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 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을 보면, 건국초기에는 중국의 국영기업은 주로 구소련의 회계제도를 도입해서 사용하였다. 대역지기, 조정기에는 그 시기의 회계제도는 있지만, 문화대혁명시기에 들어가면서 많은 회계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를 통해서 중국 기업회계기준을 발전 초반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은 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기업회계규칙이나 재무제표원칙을 도입하여 완전한 체계로 발전했다.

2) 1978년에 이르러 중국경제가 대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정책을 실시했다. 이시기는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해서는 아주 주요한 시기로서 확립기에 해당된다. 많은 회계제도가 이 시기에 제정되었으며 발전되었다. 같은 시기에 한국의 기업회계기준도 활발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정, 기업회계원칙, 재무제표규칙의 체계로 개정되고 발전되었다.

3) 1981년부터 1996년까지는 한국 기업회계기준의 확립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은 9차례의 개정을 해가면서, 회계기준의 일반원칙과 기업회계 실무지침들이 구체적으로 체계를 확립하는 시기가 된다.

4) 1992년에 들어가면서부터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국제회계기준의 접근기에 들어가고,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경제력을 잃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5) 2006년에도 중국경제의 진일보한 국내외 발전을 위해서 「재정부」가 「기업회

계기준 2006」을 공포하였다. 이번 개혁은 중국의 회계사상 지금까지 범위가 가장 넓고, 그리고 그 정도도 가장 높은 개혁이다.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은 많은 기업들의 다국적 화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주도해 가면서 계석 선진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정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선진화되어 있고, 국제회계기준이도 많이 접근할 수 있지만, 국제적인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개선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제2절 기업회계제도의 체계 비교

1. 기업회계제도의 목적비교

한국은 기업회계제도의 재정목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 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회계기준의 주된 제정목적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를 위해 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외부감사대상회사 이외의 기업회계처리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의 기업회계제도는 제정목적은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업무를 강화하고 외국투자기업 및 그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외국투자기업 및 그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외국투자기업 관련법을 및 근거하여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양자는 근거법률이 다르며, 제정목적이 현저히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회계제도와 재무관리규정은 중국 법률에 따라 비준된 중국 내에 설립한 중외합작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중국은 전국적인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업무와 재무업무는 재정부에서 총괄하여 관리하지만, 지역소속의 외국투자기업의 업무는 성, 자치구, 직할시와 단일경제시의 재정국에서 관리하고, 외국투자기업회계제도를 근거로 필요에 따라 보충규정을 제정하여 재정부

에 보고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회계제도와 관련 보충규정을 근거로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회계제도를 정한 후, 소관 재정부문, 소재지 세무관서 및 기업의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회계의 목적을 "회계정보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주된 회계정보 이용자는 투자자는 채권자이며, 그들은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회계정보를 이용한다.

그러나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정보는 국가의 거시적 경제관리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관련된 각 당사자가 기업의 재무상황과 경영성과를 이해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하며 기업의 내부 경영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주된 회계정보 이용자가 다르며, 그들의 회계정보의 이용목적도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재무회계의 목적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국가 거시경제관리의 수요만족이라는 점은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의 특이한 목적이다. 이것은 중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실행하면서 중국정부가 기업 경영관리에 대한 관리방식과 전반적인 국민경제의 거시적 관리의 자원배분, 기업관리, 세금징수 등 여러 분야에서 회계정보에 대한 수요와 기업 회계정보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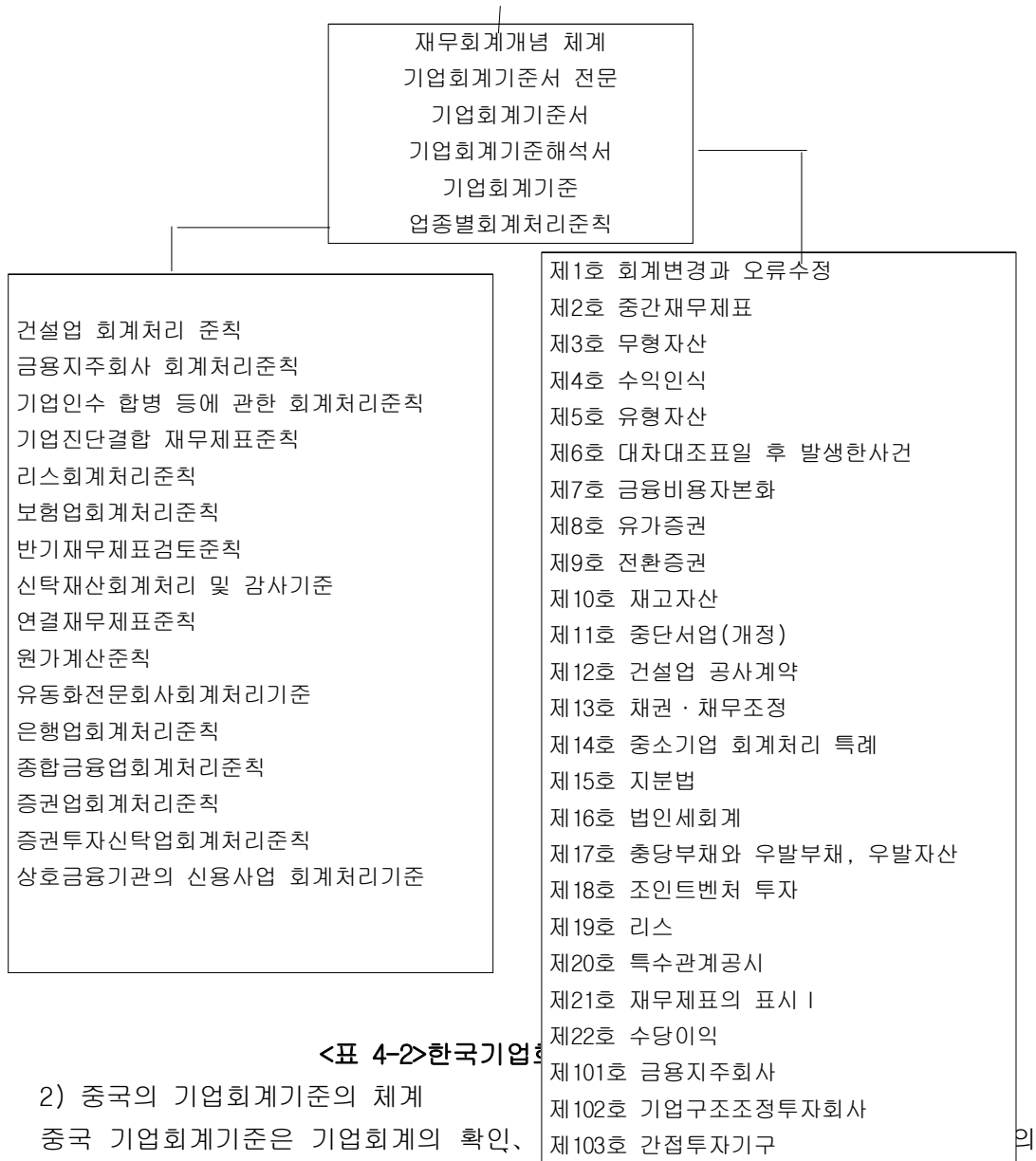
2. 기업회계제도의 체계와 구성 비교

1)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의 체계

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외감법"이라 한다)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은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0.8.25개정). 한국 기업회계기준이 주된 제정목적이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

의 회계와 감사인 주식회사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받지 않는 일반기업도 원칙적으로 기업기준에 따라야 한다.

한국 기업회계기준의 체계는 재무제표 개념체계, 기업회계기준서 전문, 기업회계기준서(제1호-제103호), 기업회계기준해석서,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업종에 따라 회계처리할 내용 등을 서술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1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 4-2>한국기업회계기준

2)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의 체계

중국 기업회계기준은 기업회계의 확인, 측정, 평가, 기록, 보고의 질을 보증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 등에 따

라서 제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기업회계기준에 대하여 2006년 2월 15일에 다시 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현행 중국 기업회계기준의 상위 구조는 회계법이며 이는 중국회계법규의 기본법이다. 기업회계기준은 기본회계기준은 기본적 준칙과 구체적 준칙을 포함한다. 중국에서 기본적 준칙과 구체적 준칙이 병행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구체적 준칙의 제정은 기본적 준칙에 따라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는 기본적 준칙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 준칙은 총 38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이렇게 되어 있다.¹⁹⁾

기본적 준칙: 제01장 總則

제02장 會計信息質量要求

제03장 資產

제04장 負債

제05장 所有者權益

제06장 收益

제07장 費用

제08장 利潤

제09장 會計計量

제10장 財務會計報告

제11장 附則

구체적 준칙²⁰⁾: 제01호 存貨

제02호 長期股權投資

제03호 投資興房地產

제04호 固定資產

19) 楊海寧, 한·중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비교 연구, 2007

20) 《국무원은 <기업재무통칙>, <기업회계준칙>에 관한 회답》(국함[1992]178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는 《기업회계준칙》(재정부령제 5호)에 대해 개정하고, 개정된 후의 《기업회계준칙-기본준칙》을 이미 부무회의의 토론을 통해서 통과하고 공포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두38항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제05호 有型資産
- 제06호 無形資産
- 제07호 資産減值
- 제09호 職工薪酬
- 제10호 企業年金基金
- 제11호 股份支付
- 제12호 債務重組
- 제13호 或有事項
- 제14호 收入
- 제15호 建造合同
- 제16호 政府補助
- 제17호 借款費用
- 제18호 所得稅
- 제19호 外幣折算
- 제20호 企業合并
- 제21호 租凭
- 제22호 金融工具確認和計量
- 제23호 金融資産轉移
- 제24호 套期保值
- 제25호 原保險合同
- 제26호 再保險合同
- 제27호 石油天然氣開采
- 제28호 會計政策、會計估計變更和差錯改革
- 제29호 資産負債表日後事項
- 제30호 財務報表列表
- 제31호 現金流量錶
- 제32호 中期財務報表
- 제33호 合并財務報表
- 제34호 分股收益

- 제35호 分布報告
- 제36호 關聯方披露
- 제37호 金融工具列表
- 제38호 首次執行企業會計準則

3.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 비교

1)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반원칙으로 신뢰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충분성의 원칙, 계속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실질우성의 원칙을 들고 있다.

신뢰성의 원칙은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명료성의 원칙은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성의 원칙은 중요한 회계방침과 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계속성의 원칙은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중요성의 원칙은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안전성의 원칙은 회계처리과정에서 2개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실질우선의 원칙은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 중 신뢰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충분성의 원칙, 중요성의 원칙은 주로 재무보고에 대한 원칙이나 계속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실질우선의 원칙은 회계처리에 대한 원칙이다.

2) 중국의 기업회계제도의 일반원칙

중국의 기업회계제도에서는 일반원칙으로서 진실성의 원칙, 유용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비교가능성의 원칙, 실질중시의 원칙, 전면성의 원칙, 신중성의 원칙, 적시성의 원칙을 들고 있다.

진실성의 원칙은 기업은 실제로 발생한 거래와 사건에 의거해서 회계확인, 측정과 보고를 해야 한다.

유용성의 원칙은 기업의 제공한 회계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과 관련되어야 하고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야 한다.

명료성의 원칙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한 회계정보는 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비교성의 원칙은 기업이 제공한 회계정보는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실질중시의 원칙은 기업은 거래나 사건의 경제실질에 따라서 회계확인, 측정과 보고를 해야 한다.

전면성의 원칙은 기업이 제공한 회계정보는 기업의 재무상황, 경영성과와 현금흐름 등과 관련된 모든 거래나 사건을 반영해야 한다.

신중성의 원칙은 기업이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회계확인, 측정과 보고를 할 때 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

적시성의 원칙은 기업에 이미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적시에 회계확인, 측정과 보고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양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보고를 중심으로 일반원칙을 기술하고 있지만, 외국투자기업회계제도에서는 재무보고를 중심으로 일반원칙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국제회계기준과 한국과 중국의 회계기준의 일반원칙을 비교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4-3>국제회계기준과 한·중 회계기준의 일반원칙 비교

국제회계기준	한국	중국
1. 계속기업의 원칙	1. 신뢰성의 원칙	1. 진실성의 원칙
2. 지속성의 원칙	2. 명료성의 원칙	2. 유용성의 원칙
3. 발생주의 원칙	3. 충분성의 원칙	3. 명료성의 원칙
4. 신중성의 원칙	4. 계속성의 원칙	4. 비교가능성의 원칙
5. 실질성의 원칙	5. 주요성의 원칙	5. 실질중시의 원칙
6. 중요성의 원칙	6. 안전성의 원칙	6. 투명성의 원칙
	7. 실질우선의 원칙	7. 신중성의 원칙
		8. 적시성의 원칙

제3절 재무제표의 체계

1. 대차대조표의 비교

대차대조표는 재무제표 중에서 특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재무제표이다. 그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²¹⁾

첫째,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자원 및 그 분포, 자원의 조달 및 운영성과를 알 수 있다.

둘째,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재산과 부채의 수량관계 및 그 유동성을 알 수 있으며 기업의 장단기 부채상환능력 및 재무탄력성을 알 수 있다.

셋째, 서로 다른 시기에 동일항목을 비교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황과 현재의 기업의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의 재무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1) 중국의 자산·부채표

중국 기업회계기준에서 자산·부채표는 어떤 특정일에 기업의 재무상황을 반영하는 장

21) 宋海容, 中國과 韓國 企業會計基準 比較 研究, 2009

표이고, 자산부채표의 항목은 자산, 부채, 소유주권익의 유형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산·부채표는 회계기말 각 관련 회계과목의 잔액을 근거로 산출하며 자산을 유동성에 따라 배열함으로써 기업의 현금조달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부채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함으로써 기업의 부채상황과 상환능력을 직접 공시할 수 있다.

(2) 한국의 대차대조표

한국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은 :①구분표시기준②유동성배열기준③항목의 구분·통합표시④자산과 부채의 순액표시 4가지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에 있어서 그 분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한 자세한 계정과목도 아래 표에서 보는 비교 같이 차이가 있다.

<표4-4>한국과 중국의 대차대조표의 비교

한국의 대차대조표	중국의 자산부채표
자산	자산
Ⅰ. 유동자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 (貨幣資金)
현금 및 현금등가물	미수 및 선급비용 (應收及預付款項)
단기금융상품	거래성투자 (交易性投資)
유가증권	재고 (存貨)
매출채권	持有至到期投資
단기대여금	유동자산 합계
미수금	

<p>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당좌자산 합계 (2)재고자산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 재고자산 합계 유동자산 총계 II . 고정자산 (1)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투자유가증권 장기대여금 장기성매출채권 투자부동산 보증금 이연법인세차 기타의 투자자산 투자자산 합계 (2)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p>	<p>II . 비유동자산 장기주식투자 (長期股權投資) 투자부동산 (投資性房地產) 고정자산 (固定資產) 생물자산 (生物資產) 체연소득세자산 (遞延所得稅資產) 무형자산 (無形資產) 비유동자산 합계 자산 총계</p>
--	---

<p>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기타의 유형자산 유형자산 합계 (3)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창업권 개발비 기타의 무형자산 무형자산 합계 자산 총계</p> <p>부채 I .유동부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급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배당금 유동성장기부채 선수이익 단기부채선충당금 기타의 유동부채</p>	<p>부채 I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初期借款) 미지급 및 선수비용 (應付及預付款項) 미지급세금 (應交稅金) 미지급급여 (應付職工薪酬) 예수금 (預付負債) 유동부채 합계</p>
---	---

<p>유동부채 합계</p> <p>II . 고정부채</p> <p>사채</p> <p>장기차입금</p> <p>장기성매입채무</p> <p>장기부채성충당금</p> <p>이연법인세대</p> <p>기타의 고정부채</p> <p>고정부채 합계</p> <p>부채 총계</p> <p>자본</p> <p>(1)자본잉여금</p> <p>(2)이익잉여금</p> <p>(3)자본조정</p> <p>자본총계</p> <p>부채와 자본 총계</p>	<p>II . 비유동부채</p> <p>장기차입금 (長期借款)</p> <p>장기미지급비용 (長期應付款)</p> <p>미지급채권 (應付債券)</p> <p>체연소득세부채 (遞延所得稅負債)</p> <p>비유동자산 합계</p> <p>부채 총계</p> <p>소유자권익(자본)</p> <p>납입자본금</p> <p>자본공적금</p> <p>잉여공작금</p> <p>미분배이윤</p> <p>자본 총계</p> <p>부채와 소유자권익 총계</p>
---	---

2. 손익계산서의 비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²²⁾ 첫째, 기업의 경영성과의 분배에 관한 중요 자료를 제공한다.

현대의 기업 내·외부에 많은 이해관계자 집단이 그 기업에 제공한 자본 또는 노무 등에 대하여 상대적인 분배를 바라고 있다. 손익계산서는 이러한 분배의 기초를 제공하

22) 宋海容, 中國과 韓國 企業會計基準 比較 研究, 2009

는 것이다. 즉, 이익에서 법규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영성과의 배분기초가 되는 것이다.

둘째, 경영자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현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외부 이해관계자가 성과평가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이다.

셋째,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가능하게 한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미래 의사결정을 위하여 기업의 현금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현금흐름 중에서 영업활동과 관련한 현금흐름은 손익계산서항목에 적당한 조절을 하면 산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손익계산서는 곧 기업의 미래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 한국의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일정기간동안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작성기준은 기업회계기준 제35조에 ①발생주의 원칙²³⁾, ②수익·비용대응의 원칙²⁴⁾, ③총액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여서 아니 된다, ④손익구분표시 원칙으로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 비용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²⁵⁾

(2) 중국의 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 제 59조에서는 손익계산서 작성시준을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에 있어 경영성과 및 그 분배상황을 반영하는 장표이며, 손익계산서의 항목은 이윤의 구성과 이윤분배 각 항목에 따라 항목별로 표시하며 이윤분배 부분 각 항목은 별도로 이윤분배표를 작성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3)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

24)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

25)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 이외의 기업은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윤분배는 이윤총액, 세후이윤, 분배가능이윤, 미분배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고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이윤은 소득세 납부, 몰수당한 재물손실, 세법규정에 의한 지불채납금과 벌금, 기업의 과거연도 이월결손금의 보충, 법적적립금, 공익금설정, 이윤배당 순으로 분배한다. 또한 기업회계준칙 제16조 회계계산은 권한·책임발생제를 기초로 한다는 발생주의와 제17조 수입과 그 관련된 원가, 비용은 상호 대응하여야 한다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모두 매출의 차감계정으로 보고 매출에서 직접 차감한다. 따라서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나타낸다.

<표4-5>한국과 중국의 손익계산서 비교

한국	중국
I .매출액	I .주영업무수익 (主營業收入)
II .매출원가	주영업무원가 (主營業務原價)
기초상품	주요 영업업무 세금 및 부가 (主要營業
매입	收入稅金及附加)
기말상품	II .주영업무이익 (主營業務利潤)
III .매출총이익	기타업무이익 (其他業務利潤)
IV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 (營業費)
급료	관리비 (管理費)
보험료	재무비 (財務費)
대손상각비	III .영업이익 (營業利潤)
감가상각비	투자수익 (投資收益)
V .영업이익	보조수익 (補貼收入)
VI .영업외 수익	영업외수익 (營業外收入)
임대료	영업외지출 (營業外支出)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IV .이익총액 (利潤總額)

VII. 영업외 비용 이자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VIII. 경상이익 IX. 특별이익 채무면제이익 X. 특별손실 재해손실 XI. 법인세 비용차감전손손익 XII. 법인세비용 XIII. 당기순이익	소득세 (所得稅) V. 순이익/손실 (淨利潤/虧損)
---	---------------------------------

3. 현금흐름표의 비교

최근에는 투자자나 채권자 등의 회계정보이용자들은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투자자에게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채권자에게 원금의 상황 및 이자 지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기업의 현금동원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다. 현금흐름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전체의 재무상황 및 그 변동의 원인을 나타낸다.

기업이 경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현금의 흐름을 통해서 실현된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경영, 투자,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재무상태의 변동내용까지도 표현함으로써 재무상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해하게 해준다.

둘째, 기업 재무상황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현금흐름표를 활용함으로써 현금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며, 미래의 기업의 재무상환능력 예컨대 배당, 임금, 원재료 구입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등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한다.

(1)현금의 현금흐름표²⁶⁾

현금흐름표는 일정기간 동안에 기업의 현금흐름(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1974년까지는 재무상태변동표를 작성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현금흐름표를 도입하였으며 같은 해에 기본 재무제표에 포함하였다.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을 가진다.

(2) 중국의 현금흐름표

기업회계준칙 제60조에 따르면 주로 일정 회계기간내의 운영자금의 출처와 운용 및 그 증감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재무상태변동표를 작성하며, 현금흐름표는 선택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재무상태변동표의 항목은 운영자금 출처와 운영자금 운용으로 나뉘며 운영자금출처와 운용자금 운용의 차액은 운영자금 증가(혹은 감소)순액으로 한다. 운영자금출처는 이윤출처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운영자금운용은 이윤분배와 기타 용도로 분류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홍적화외, 2003)

<표4-6>한국과 중국의 현금흐름표 비교

한국	중국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I. 경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經營活動)

26) 최창환 한국과 중국의 기업회계제도 비교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5

매출등 수익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產生的現金流量) 현금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현금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投資活動 產生的現金流量)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III. 조달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籌資活動 產生的現金流量) 조달활동현금유입 조달활동현금유출
IV. 현금의 증가	IV. 환율 변동이 현금에 대한 영향 (換率變 得現金流) V.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순 증가액 (現 金及現金等價物淨增加額)
V. 기초현금	
VI. 기말현금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비교

(1) 한국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²⁷⁾

기업회계기준 제76조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는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적 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이익잉여금 처분액,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등으로 구분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손금계 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처리전 결손금처리액(임의적립금이입액,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이익준비금이입액, 재평가적립금이입액, 자본준비금이입액), 차기이월 결손금 등을 구분표시하도록하고 있다.

(2) 중국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7) 최창환 한국과 중국의 기업회계제도 비교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5

회계준칙에는 손익표에 이윤분배를 첨부하거나 경우에 따라 이윤분배표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윤분배표는 이윤총액, 세후이윤, 분배가능이윤, 미분배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특히 이윤을 소득세 납부, 몰수당한 재물손실, 세법규정에 의한 지불채장금과 벌금, 기업의 과거연도 이월결손금의 보충, 법정적립금, 공익금설정, 이윤배당 순으로 분배한다(홍정화 외, 2003).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은 결손이 발생하면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 회계준칙에서는 결손금처리 문제만 언급하고 있을 뿐 결손금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를 적성하지 않는다.

<표4-7>한국과 중국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이윤분배표)비교

한국	중국
I. 처분전 이익잉여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 회계변경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이익 당기순이익	I. 순이익 (淨利潤) 전기 미배분이윤 임의적립금이입액
II. 임의적립금이입액 신축적립금이입액 배당평균적립금이입액	II. 분배가능이윤액 (分配可能利潤額) 법정적립금인출 법정공익금인출
III. 이익잉여금 처분액 이익준비금 배당금 강제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별도적립금	III. 주주처분가능이익잉여금 (股東處理可能利潤盈餘) 우선배당금지불 임의적립금인출 보통배당금지불 주식의 보통주배당금으로 전환
IV. 차기이월이익잉여금	IV. 미처분이익잉여금 (尾分配利潤盈餘)

5. 한국과 중국의 재무제표의 비교

회계를 기업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사건을 측정, 기록하여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마지막 단계가 곧 재무보고이다. 오늘날 기업은 기업의 내·외부에 많은 이해 관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이해 관계자에게 기업내부에서 일어난 각종 경제적 사건을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는 기업내부에 일어나는 각종 상황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정보제공 수단이 곧 재무제표이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회계순환과정의 최종산물이다.

한국의 기업회계제도는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을 명문화하고 있고 그 내용 역시 간결하고 명확한데 반하여 중국의 외국투자기업회계제도 비록실제 작성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의 요구를 한국과 유사하게 하고 있으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을 명문화하지 못하고 명문화한 내용도 역시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이는 중국의 외국투자기업회계제도의 완전성의 결여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에서 한국은 총액주의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윤표의 양식에 대하여 강제규정을 두어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기준으로 명문화하지 않았다.

중국의 기업회계제도는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회계보고와 일반원칙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회계보고에서 "재무제표는 경제업무의 기록을 완료한 상태에서 심사를 거친 장부기록과 기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치가 진실하고 계산이 정확하며 내용이 완전하게 즉시 송부보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실체의 자원과 그 자원에 대한 청구권 및 이들의 변동을 일으키는 거래나 사건 또는 환경의 영향을 인식하여 측정된 결과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재무제표는 기업실체의 외부 정보이용자에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정부를 전달하는 핵심적 재무보고 수단이다. 아래 중·한 양국의 재무제표의 종류 및 작성을 살펴

보고 비교한다.

<표4-8>한국과 중국의 재무제표 종류의 비교

한국	구분	중국
대차대조표	재무제표의 종류	자산부채표(資產負債表)
손익계산서		이윤표(損益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유량표(現金流量表)
현금흐름표		소유자권익변동표(所有者權益變動表)
주기와 주식		

제4절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비교

1. 자산의 인식

1) 한국 기업회계기준에서 자산에 대한 인식²⁸⁾

한국 기업회계에서 자산의 정의에 대해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라고 기술한다.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산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에 이용된다. 생산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고객은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이며 이로부터 기업실체의 현금흐름이 창출된다. 또한 자산은 다른 자산과의 교환 또는 부채의 상환에 사용되거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에 사용될 수 있다. 현금은 그 자체로서 다른 자산에 대한

28) 宋海容, 中國과 韓國 企業會計基準 比較 研究, 2009

구매력을 통하여 기업실체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한다.

자산은 당해 항목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측정 속성에 대한 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면 대차대조표에 인식한다.

어떤 거래로 인한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당해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경영자가 그 지출거래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당해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출된 개발비가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경영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 중국 기업회계기준에서 자산에 대한 인식

중국 기업회계에서 자산의 정의에 대해 "자산은 기업에 있어서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서 소유하거나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라고 기술한다.

기업에 있어서 과거의 거래나 사건은 구매, 생산, 건조행위나 기타 거래나 사건을 포함한다. 미래에 발생할 거래나 사건을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실체에 의해서 소유하거나 지배되는 것은 기업이 어떤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자원은 기업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을 말한다.

미래에 경제적인 이익이란 미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현금과 현금등가물이 기업에 유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말한다.

중국 기업회계기준의 기본준칙에서 자산을 인식할 때 자산의 정의를 만족하는 동시에 다음 조건에 적합해야 자산으로 인식한다.

- ① 그 자원에 관련된 경제 이익은 기업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

②그 자원의 원가나 가치를 확실히 측정될 수 있다.

동시에 자산의 정의와 자산의 인식조건에 적합해야 대차대조표에 기입하고 자산의 정의와 자산의 인식조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대차대조표 기입하면 안 된다.

2. 부채의 인식

1) 한국 기업회계기준에서 부채에 대한 인식

한국 기업회계에서 부채의 정의에 대해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듯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라고 기술한다.

기업실체가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의무는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계약이행에 따른 의무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고 위약금과 같은 불이익의 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의무가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부채로 인식되어야 한다.

2) 중국 기업회계기준에서 부채에 대한 인식

중국 기업회계에서 부채의 정의에 대해 "부채는 기업에 있어서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무이다"라고 기술한다.

현재의무란 기업은 현행조건하에서 이미 부담하는 의무이다. 미래에 발생할 거래나 사건에 대한 의무가 현재의무가 아니어서 부채로 볼 수 없다.

중국 기업회계기준의 기본준칙에서 부채를 인식할 때 부채의 정의를 만족하는 동시에 다음 조건에 적합해야 부채로 인식한다.

①그 업무와 관련된 경제 이익은 기업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

②미래에 유출할 경제 이익의 금액을 확실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부채의 정의와 부채의 인식조건에 적합해야 대차대조표에 기입하고 부채의 정의와 부채의 인식조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대차대조표에 기입하면 안 된다.

3. 한국과 중국의 자산·부채 평가비교

중국의 경우에는 취득원가만이 인정될 뿐 저가주의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고자산 평가는 취득시의 실제원가만이 인정되는 원가주의로 회계 처리한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단가를 상정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는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총액법만 인정될 뿐 매출가격환원법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유형자산평가에서는 취득원가의 원칙을 고수하며, 증여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관련법규에 따라 유형자산가치를 확정하고 감가상각에 있어서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과 가속상각법만 인정할 뿐 다른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단순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투자자산의 평가를 원가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특이한 경우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부채의 평가기준으로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기업의 부담하는 채무액을 원칙으로 하며 사채발행에 있어서 양 국가는 동일하게 액면금액으로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채할인 또는 할증발행차금은 사채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상각 또는 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채권채무의 재조정, 해외지점 등의 외화환산, 국고보조금 등의 처리, 파생상품의 처리, 자본조정의 처리, 회계변경, 우발상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세부적인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의 <표4-7>에 정리하였다.

<표4-9>한국과 중국의 자산·부채의 평가 비교²⁹⁾

구분	한국의 기업회계기준	중국의 기업회계제도
1. 유가증권의 평가	-취득원가(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기말시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	-취득원가주의
2. 채권의 평가	-순실현가능가액(대손충당금 설정)	-대손충당금(환장준비금)설정
3. 재고자산의 평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원칙이나 특정한 경우 매출가격환원법 적용	-취득원가주의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 후입선출법만 적용
4. 투자채권의 평가	-취득원가(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 상환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다른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 후 자본조정	-주식투자자와 기타투자자는 상황에 따라 원가법 혹은 지분법을 적용 -채권투자의 경우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가액에 걸쳐 취득원가에 가감
5. 유형자산의 평가	-취득원가(제작원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 가산) -감가상각방법(정액법, 정율법, 생산량비례법등 합리적인 방법)	-취득원가주의를 원칙 -증여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소정요건시 생산량비례법과 가속상각법)
6. 무형자산의 평가	-취득원가(제작원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 가산) -감가상각(정액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	-구입한 무형자산은 실제원가로 자본투자자로 받은 무형자산은 약정가격으로, 자가개발무형자산은 실제지출액으로 함
7. 부채의 평가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액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액
8. 사채발행차금의	-최종상환까지 유효이자율법 적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상각·환

29) 최창환 한국과 중국의 기업회계제도 비교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5

평가	용	입(정액법이나 유효이자율법적용)
9.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유효이자율법으로 할인한 가액	
10. 채권·채무의 재조정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있는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	
11. 기타의 평가	-파생상품의 처리 -자본조정의 처리 -회계변경 및 우발상황 -대차대조표 후에 발생한 사건	-외화항목의 기말잔고는 결산일 환율로 평가하고, 그 차액은 환손익으로 당기손익에 포함

제5절 수익과 비용 인식기준의 비교

1. 수익의 인식

수익의 인식이란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과 수익이 귀속되는 회계기간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이미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환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에 대한 공정가치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IAS NO.18)에서 수익은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을 한 특정 기간 동안 유입된 총경제적 효익으로 주주의 기부와 관련된 증가이외에 지분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품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 로열티와 배당이 발생하는 기업자산의 타인에 의한 사용에 대한 인식기준을 정하고 있다. 수익인식을 위하여 적용된 회계방침, 산출된 수익금액, 각 수익 범주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교환으로 발생한 수익금액은 공시하여야 한다.

1) 한국의 수익 인식기준

한국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수익이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이다. 수익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유입액을 나타내며,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해 수익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 매출액, 이자수익, 배당 수익 및 임대수익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수익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에서 인식한다.

- ①수익은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가능 시점에서 인식한다.
- ②수익은 그 가득과정이 완료되어야 인식된다.

2) 중국의 수익 인식기준

중국 「기업회계기준제14호-수익」문단2에서 수익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서 형성하고 기업의 재산을 증가시키고 소유자의 투입자본과 상관없는 경제이익의 총유입액을 말한다. 수익의 성질에 따라서 상품매출수익, 용역제공수익 및 자산양도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이 상품 매출 수익의 인식은 다음의 5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 ①기업은 상품소유권상의 주된 위험과 보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②기업은 소유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관리권과 통제권이 없어야 한다.
- ③수익의 금액이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④거래와 관련 있는 경제이익이 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어야 한다.
- ⑤관련된 발생한 비용이나 발생할 비용이 계량화 될 수 있어야 한다.

2. 비용의 인식

1) 한국의 비용 인식기준

한국에서 비용이란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이다. 경제적 효익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비용으로 인식한다.

- ①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 ② 수익과 직접 대응 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 ③ 자산으로 부터의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인식한다.

2) 중국의 비용인식기준

중국에서 비용은 기업이 상품을 매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희생 또는 경제적 유출을 말한다. 비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① 비용은 기업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유출이지 우연히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유출은 아니다. 우연히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유출은 손실에 해당된다. 중국에서는 손익계산서 상에 영업외지출이라는 과목으로 손실을 처리한다.
- ② 비용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또는 양자의 결합으로 표시한다.
- ③ 비용은 소유자 지분을 감소시킨다.

비용은 광의의 비용과 협의의 비용이 있다. 광의의 비용이란 기업의 경영 중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지출, 예를 들면 경영비용, 투자손실, 영업외지출 및 소득세비용 등이다. 협의의 비용이란 기업의 상품판매, 노무제공 등 일상 경영활동 중에서 발생한 각종 지출, 즉 경영비용을 말한다.

비용과 원가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원가는 아직 용역잠재력이 소멸되지 않은 자산을 말하고, 비용은 용역잠재력이 소멸된 것을 말한다. 비용은 크게 판매비용, 재무비용, 영업비용으로 나누어진다.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당기에 발생하는 비용은 실제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반대로 당기에 발생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그 돈을

현재 지급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3. 한국과 중국의 수익·비용인식기준 비교

한국과 중국의 수익인식기준을 살펴보면, 위탁판매의 경우 한국은 수탁자가 판매한 날 인식하나 중국은 위탁판매보고서를 수령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할부판매의 경우에도 한국은 상품 등을 판매한 날에 수익을 인식하고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지만, 중국은 송장작성일 또는 할부금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수익이 인식되는 것으로 한다.

한국에서는 장기공사를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진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사, 제조 및 용역제공과 관련된 수익, 원가 또는 진행을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을 인식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반면, 중국은 공사진행기준 혹은 공사완성기준 중 택일하여 적용하고 있다.

기간비용의 인식에 있어 한국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통합하여 같은 항목으로 부류하는데 비하여, 중국은 판매비용과 관리비용으로 세분하여 구분하고 있다. 중국은 재무비용의 인식시 지불이자에서 수입이자를 차감하여 계상하고, 외환차손의 경우에도 외환차손에서 외환차익을 차감하여 계상하고 외환차손의 경우에도 외환차손에서 외환차익을 차감하여 계상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관련된 수수료를 재무비용으로 처리한다. 다음의 <표4-8>은 한·중의 수익·비용인식 기준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제시하였다.

<표4-10> 한국과 중국의 수익·비용인식기준 비교

구분	한국	중국
1. 일반매출	-인도기준(판매기준)	-인도기준(판매기준)
2. 위탁매출	-수탁자가 판매한 날	-위탁판매보고서 수령일
3. 시용매출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	-

4. 용역매출 · 예약매출 (도급공사 포함)	-장 · 단기 구분 없이 진행기준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
5. 할부매출	-인도시준을 적용하고 이자 상당액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	-송장작성일 또는 회수일
6. 수출매출	-본선 선적완료일	-
7. 부동산매출(토지 · 건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기능일 중 가장 빠른 날	-
8. 이자수익	-원금이나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결과분에 대한 이자비용 현금수취 시점	-지불이자에서 수입이자를 차감(재무비용)
9. 제조원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경비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비용
10. 기간비용	-제품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특별손실	-제품매출원가 -판매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
11. 이자비용	-기간경과분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으로 인식	-재무비용의 지불이자

제6절 외화환산회계의 비교

국제회계기준(IAS No.21)에서 외화거래는 최초 발생시점에서 거래일의 보고통화와 외환율을 적용하여 동 외화금액을 보고통화를 환산하여 기장해야 하며 거래일의 환율은 일반적으로 현물환율을 의미하지만 주간 또는 월간 평균환율이 동기간동의 모든 개별거래에 적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일에 현재에 있어서 외화표시 화폐성향

목은³⁰⁾ 마감환율로 보고하고, 외화표시 역사적 원가로 계상된 비화표시 공정가치로 계상된 비화폐성 항목은 동 가치가 결정된 시점의 환율로 보고되어야 한다. 환차의 인식에 있어서 화폐성 항목의 정산시 발생하거나 최초의 환율과 다른 환율로 보고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환차는 발생한 기산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한다.³¹⁾ 보고기업 영업활동의 일부를 구성하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는 동 해외사업장의 제반거래가 보고기업 자체의 거래인 것처럼 간주하여 시재법으로 환산한다.

1. 한국의 외환환산회계

기업회계제도에서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에 발생하는 외환환산순익인 당기의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며,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영업외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화폐성·비화폐성법에 따라 외환환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과 파생상품등에 관한 해석 등에서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시제법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환산은 화폐성·비화폐성법을 원칙을 하면서 특정 자산에 대하여는 시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30) 화폐성 항목이란 보유화폐 및 확정된 화폐금액으로써 수취 또는 지불해야 할 자산 또는 부채를 의미한다.

31) 단, 보고기업의 외국실체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환차(17항)와 보고기업의 외국실체에 대한 순투자를 헤징할 목적으로 계상한 외화 부채에서 발생한 환차(19항)는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시점인 등 순투자의 처분시점까지 재무제표상 준비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중국의 외화환산회계

기업의 외화표시거래는 기장본위통화가 아닌 화폐로 행하는 상품매매거래와 자금대차거래 등을 말하며, 외화표시거래가 발생할 때 외화표시금액은 가장 한 통화로 환산하여 가장하고 적용환율은 거래발생시의 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하는 당일의 시장환율이나 당월첫날 환율중 선택하여 자산 혹은 부채의 가액을 환산한다.

월차, 분기 또는 년도 종료시의 외화표시자산 및 외화표시부채의 장부 가액은 월말 환율로 환산하여 자산·부채표가액으로 반영하고 외화환산차손은 당기재무비용으로 처리하며, 외화자산의 회수 혹은 외화부채의 상환시 장부가액과 당시 환율의 변화로 인하여 외화환산차손은 당기 재무비용에 산입한다.

외화환산차손익이 창업 및 개업기간에 발생한 경우에 외화환산차손은 기타자산의 개업준비기간환손실로 처리하며, 5년 이상의 기간에 균등상각하고, 외화환산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부채의 개업준비기간환차익으로 처리하며, 5년 이내의 기간에 균등하게 각 연도의 수익으로 처리하거나 결손을 유보 혹은 청산수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외환으로 자본금을 불입할 경우에는 자본금 출자일의 시장환율에 따라 환산해야 하며, 발생하는 외환손익은 관련된 외환손익은 관련자산의 고정자산 또는 건설 공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외화조정으로 매입매출한 외화는 실제의 조정가액으로 환산하며, 구입 시의 인민폐금액을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개별법을 선택 적용한다.

3. 한국과 중국의 외화환산회계의 비교

한국의 기업회계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화폐성과 비화폐성으로 구분하여 화폐성인 경우 대차대조표일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하며, 비화폐성인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하

거나 부담할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여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은 당기의 영업외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중국의 외국투자기업회계제도는 외환거래이 있어서 화폐성과 비화폐성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거래발생시 또는 거래당월 1일의 시장환율 중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재무비용으로 차가감하며, 개업준비기간 중 발생한 외화환상손익과 외화로 자본금을 불입할 경우 자본 환산차액, 자산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외환손익 등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대상이 한국에 비하여 현실의 경제실태에 따라 세분화 되어있다. 다음의 <표4-9>는 한·중의 외화환산회계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제시하였다.³²⁾

<표4-11>한국과 중국의 외화환산회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1. 대상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해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해외중속회사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외화거래로서 금전의 수지채권채무의 결제 및 평가
2. 적용환율	-화폐성 항목은 현행환율 -비화폐성 항목은 역사적 환율	-중국 인민은행이 공표하는 시장환율(당일 환율이나 당월전날 환율)
3. 손익의 종류	-기증거래는 외환차손익 -결산회계처리는 외환환산손익 -해외지점은 외화환산익과 해외사업환산차대 -해외중속회사는 해외사업 환산차대	-금전채권채무잔액의 월말 평가는 재무비용의 외환환산손익 -개업준비기간중의 외환손익은 기타자산 또는 기타부채 -외화로 자본금 불입시는

32) 최창환 한국과 중국의 기업회계제도 비교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5

		자본잉여금의 차액 -자산취득과 관련된 환손익 은 자산원가에 산입
4. 자산·부채의 분류	-회폐성자산(현금 및 현금 등가물, 금융상품, 매출채 권, 미수금, 대여금) -회폐성무채(차입금, 매입 채무, 미지급금, 일반사채) -비회폐성자산(선급비용, 재고자산, 유형자산) -비회폐성부채(선수금, 예 수금, 선수수익, 전환사채)	-

제5장 결론

기업의 경영활동이 급속히 세계화됨에 따라 국가간의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 확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요즘 중국과 한국의 무역 및 투자환경을 급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개방은 한국과 중국 간의 개별적인 무역 및 투자에서 한국, 중국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형태로 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중국에서의 규칙의 통합적인 이해가 요구되며, 이는 회계분야도 포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현재 제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중국의 회계기준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과 중국 회계기준의 비교연구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은 국제회계기준을 따라가려는 강한 성향을 보이면서도 양국의 회계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자산의 분류, 측정, 평가 및 재무제표의 작성 등이다.

중국은 기업회계기준에 관련되는 많은 사항들이 제시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시행중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지정해야 할지가 나머지 큰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은 IMF외환위기 이후 회계제도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고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6년 이후 감사인을 재지정하는 제도 등 다른 나라에 없는 강력한 제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회계투명성이 제도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회계환경의 차이는 양국 회계기준상의 차이의 근본원이다. 즉, 회계정보에 제약을 주는 사회 환경에 따라 회계가치관 및 회계제도가 결정되며 이는 결과적 중국과 한국 회계 상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중국과 한국에서 회계개혁과 회계기준의 제정은 양국경제의 발전수준과 경제체제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수 없다. 회계환경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 가장 적절한 회계기준은 있으나, 가장 완벽한 회계기준은 없다

고 본다.

셋째, 자본시장이 점차로 국제화되고 투자자들과 다국적 법인,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가능성의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다. IFRS의 도입은 국내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나라가 대외적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통합된 회계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각국의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함께 참여하여 근본적인 재무보고의 개선뿐만 아니라 더 나은 재무보고의 기준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중국과 한국의 회계기준은 자본시장경제의 체제와 국제적 교류에 영향을 받아 꾸준히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회계기준의 현황, 중국과 한국 회계기준의 차이점 및 중국과 한국 제회계기준의 도입상황을 소개하였고 향후의 연구에서는 다음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현행 중국회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기본법인 「회계법」, 「기업회계기준」, 「기어재무통칙」등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규정만으로 중국의 회계 전반을 이해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 세법, 중국의 회계교육제도, 중국의 회계사제도 등 중국의 다른 회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회계기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 회계실무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전역의 많은 기업의 재무제표의 사례를 통하여 실증분석을 고찰하여야 한다. 중국과 한국 기업회계의 차이점을 실무계의 전문가와 함께 연구함으로써 중국과 한국 경제교류의 활성화나 한국의 중국투자기업이 중국회계에 대한 충실한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 자본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국내기관이나 향후에 중국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려는 한국 국내기업들이 중국의 회계기준에 대한 몰이해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중국이 장래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한국 회계법인이나 투자자문회사들이 중국진출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한국문헌

- 김종규 기업회계기준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사회과학연구 제11집, 2002
- 李義後 「신회계이론」, 삼영사, 2001
- 이상일 「중국과 홍콩의 회계와 세무」, 삼정 KPMG, 2002
- 이상일 「중국의 회계와 조세제도」, 산동회계법인, 1997.12.
- 李 穎 "한국과 중국의 회계기준에 대한 비교 연구", 경원대 대학원 2008
- 이재성 "중국 시장경제와 회계제도 개혁 : 기업회계제도를 중심으로 ", 회계연구 제6권 제2호, 2001.12
- 이학규 "중국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 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5.8
- 최상문 "중국기업의 소유형태와 회계제도", 「부산상대논집」 제70집, 1999.6
- 최상문의 "중국 WTO 가입이 중국회계환경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 제8권 제1호 2002.4
- 최진현 "중국회계의 제도적 분석", 회계정보연구 제14권, 회계정보학회, 2000.12
- 최창환 한국과 중국의 기업회계제도 비교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5

중국문헌

- 本書編寫組 會計制度下的財務決策 .中國市場出版社. 2006
- 本書編寫組 新會計制度下的財務分析 .中國市場出版社.2006
- 陳 北 「中国会计基准」中国财政出版社. 1993
- 陳 振 鳳 新舊企業會計制度之比較研究. 2005
- 李 曙, 葛 明, 李 琪 「中國企業破產與重組」, 北京人民日級出版社, 1996
- 劉 玉 廷 我國政府會計改革的若干問題 會計研究. 2004
- 劉 玉 廷 回顧中國跨機準則的建設兩發展之路 2009

- 論文中心 新會計制度在執行中存在問題及對策 2009
沈 英 中國會計制度改革現狀及展望, 2004
宋 海 容 中國與 韓國 企業會計基準 比較 研究, 2009
許 昌 市 新會計基本制度執行中存在的問題及建議 .金融理論與實踐.2006